

# 새로운 價格技法 모색하는

## 아시아石油市場

**최근** 아시아 石油시장의 석유가격이 격심하게 변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석유거래업자·정제업자 및 산유국 정부들은 새로운 가격결정 기법을 모색하고 있다.

中東 및 아시아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들은 엄격한 공식가격제도를 포기하고 네트백 및 시장 바스켓을 골간으로 하여 석유가격을 결정하는 기법을 선호하고 있다. 국영석유회사, 민간정유회사들이 즐겨쓰던 석유제품의 公示價格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스팟 시장가격에 밀려 뒷전에 물러서게 되었다.

이와같이 국영석유 및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그들의 석유가격 책정에 점차적으로 스팟 시장에 의지하게 되자 스팟 석유시장은 점점 더 파악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原油의 유종과 석유제품이 다양한데다 여기저기서 가격 등락이 만연되므로 시장가격의 변동추이를 정확하게 사정하기가 어렵다. 美國이나 유럽시장에서의 거래물량은 대단히 많으나, 석유제품 스펙이 일정한데 비해 아시아 시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 특색이다. 예를들어 스리랑카가 구매하는 輕油의 형태는 필리핀, 濠洲, 日本 등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고, 이들은 한달에 한번 이상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매 당사자들은 일반적인 가격현황을 모르고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격결정의 수준이 어딘가를 모르고 있다. 따라서 가격결정 공식의 필요성이 절박해졌다. 심지어 가장 빈번하게 거래되는 原油 및 석유제품도 가격결정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다. 카타르 原油는 아부다비의 머반原油와 오만原油의 월평균 가격에 연동시켜 가격이 결정되며, 오만原油는 대부분 두바이 原油의 스팟

트시장 가격에 연계시켜 결정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석유산업회의에 참석했던 석유거래업자들은 原油 및 석유제품가격이 정치성을 띤 국영석유회사들에 의해 결정되던 시대가 도래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산유국들로부터 공급이 변칙적인데다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시장기회를 노려 재고를 비축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불안정 현상은 반영구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시장가격 결정이 종래의 장기계약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나, 문제는 가격을 조정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거래업자들은 가격을 결정하는데 맥그로우힐(McGrow Hill Inc.), 로이터, 다우존스와 같은 통신사들이 보도하는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석유산업계도, 가격보도 서비스 업체들도 아시아 석유시장의 가격결정 방법에 장기계약 형태에서 단기 스팟 계약으로 이행하고 있는데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고있지 않다.

가격보도 매체에 대한 거래업자들의 높은 관심속에 지난 홍콩회의는 6개 가격보도 서비스업체들이 2일간의 열띤 토론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참여업체로는 로이터 통신(Reuters Pipeline), 에이 피 다우존스(AP-Dow Jones Telerate Service), 日本의 림(Japan's Rim Intelligence Co.), 페트롤리엄 아거스(Petroleum Argus), 런던 오일 리포트(London Oil Reports) 및 홍콩의 APPI(Asian Petroleum Price Index) 등이다. 가장 오래된 맥그로힐의 Platt's Oilgram은 회의에 참석은 거절했으나, 회의 개최전에 별도의 견해를 발표했다. 여기에 참석한 업체들은 아시아 시장의 급박한 변화에

대해 속속들이 보도하기는 점차 어렵게 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중 몇몇은 자료의 혼선으로 판단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시인하면서 시장이 엷고 불안정하면 할수록 거래업자들은 자신들의 거래는 감추고 다른 업자들의 거래에 관해 알리고 하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참석한 가격보도 서비스업체들은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상호 확인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단에 실수를 인정한 것을 볼 때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개 이상의 가격보도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하와이의東西문화센터의 에너지 본부장 Feredidun Fesharaki씨는 아시아에서의 스팩트시장 연동가격제도의 성공 여부는 가격보도업체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는 가격보도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성을 여하히 확보하느냐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몇몇 거래업자들은 서비스업체들이 제공하는 가격은 유동성이 너무 크므로 가격책정의 기준으로 사용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시아 소비국들은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및 쿠웨이트 등으로부터 네트백 가격으로 原油를 도입하고 있다. 네트백 가격제도는 스팩트시장에서 석유제품 가격보다 原油가격이 높아지는데 대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보도 서비스 기관들이 보도해 주는 스팩트 시장에서 제품 복합단가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므로 공정성 및 정확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오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등과 같은 산유국들은 매달 시장여건에 따라 가격을 변동시킴으로써 아시아 소비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가격 보도 기관들의 제공 가격에 영향을 받고 이것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도 종종 있다.

네트백과 같은 가격결정의 대안적 방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가격보도기관들의 가격제공이 더욱 더 책임 있고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PIW는 지적하고 있다. 네트백 계약 당사자들, 특히 산유국들은 가격보도 업체들이 정확한 가격(transparent price)과 정부의 영향을 받지않고 가격사정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스팩트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실방지책으로 아시아지역 시장의 거래업자들은 石油가격을 뉴욕상품거래소(NYMEX)의 석유先物가격에 연동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4년동안 美國과의 석유거래량이 2 배로 증가되었는데, 이들의 계약가격은 NYMEX의 原油 및 석유제품가격과 효과적으로 연동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뉴욕상품거래소 石油先物價格에 연동시킨다 해도 완전하게 리스크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시장불안정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많은 아시아 거래업자 특히 日本의 종합상사들은 NYMEX 연동문제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 뉴욕상품거래소의 석유先物가격은 세계 석유시장의 근본적 흐름에 역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석유거래업자들은 이와는 동떨어지게 그들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石油業界 한 전문가는 NYMEX가 거대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회사들의 움직임에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석유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작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그는 석유업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업계 밖에서 보도되는 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작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고 “가격보도” 의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는 2년전 APPI의 석유제품 지수를 개발했으며, 금년에는 原油의 지수를 개발했다.

일주일에 한번씩 APPI는 석유가격을 보도하는데, 이 가격 사정은 아시아 제국의 국영석유회사, 민간석유회사 및 무역상사들로부터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APPI의 가격 사정방법은 다른 “가격보도” 서비스업체들이 사용하는 시장조사방법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그러나 APPI의 가격 사정방법이 반드시 조작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PI는 아시아지역의 산유국과 소비국들에 의해 계약체결시 율통성 있는 가격결정공식으로 준거 이용되고 있다. 또 APPI는 몇몇 동남아 원유國들의 매월 가격조정 기초로 이용되고 있고, 현재 인도네시아는 LNG의 새로운 가격결정도구로서 APPI 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原油구매에 APPI를 이용하고 있는 서방 석유회사의 한 고위간부는 APPI는 조작하기가 힘든 타당성 있는 가격보도매체라고 평하고 있다. □